

## Global Market Report

---

#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과 과제: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글로벌 가치사슬과 국제무역

---

- 2 | 1. 연구 목적
- 4 | 2.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의 무역과 투자

#### II.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역·투자 분석

---

- 9 | 1. 對베트남 무역분석
- 15 | 2. 對베트남 투자분석

#### III. 베트남 진출기업 설문 분석

---

- 18 | 베트남 진출기업 설문 분석

#### IV. 시사점 및 제언

---

- 24 | 1. 對베트남 무역·투자의 문제점
- 26 | 2. 향후 과제 및 제언

## 요 약

-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교역 3위, 해외투자 3위 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판매시장으로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용의 모범사례로 부각
  - 현지의 저렴한 생산비용과 한-베 FTA를 통한 안정적인 교역여건, RCEP 및 TPP 등 메가 FTA 공동참여를 앞두고 베트남과의 가치사슬 활용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에 대한 우리의 무역·투자가 총량 기준으로는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측면에서는 기여도가 낮고 현지 경영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GVC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
  - (낮은 부가가치 수출) 수입중간재를 가공한 형태의 수출이 많아, 對베트남 수출 중 한국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 비율은 55.4%에 불과
    - \* 전체 우리나라 부가가치 수출 평균은 58.8%(2011년 기준)
  - (저조한 투자성과) 베트남 투자진출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2.3%와 0.6%에 불과
    - \* 아시아 진출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평균은 각각 3.4%와 26%
  - (제한적 GVC 활용) 베트남 진출기업은 본국에서 조달한 중간재로 생산한 제품을 현지시장에 주로 판매하고 아웃소싱도 제한적으로 활용
- 따라서 고부가가치 중간재 투입 비중 향상, 제3국 수출 확대, 한-베 FTA 최대한 활용 등을 통해 GVC 활용 극대화 노력이 필요
  -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중간재보다는 고부가가치 국내생산 중간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저가 베트남 현지시장에 안주하기 보다 선진국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제3국 수출을 확대할 필요
  - 한-베 FTA의 이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RCEP, TPP 등 메가 FTA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I****글로벌 가치사슬(GVC)과 한-베트남 무역****1****연구 목적**

- (배경)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경제협력이 유례없이 긴밀해지면서, 수출이 어려운 요즘 베트남이 우리의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베트남은 '15년부터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 3위, 해외투자 대상국 3위에 오르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각광(홍콩은 중국에 포함)
    - \*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는 계열사 및 협력사 투자규모 포함 약 100억 달러, LG전자도 베트남에 해외법인 중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및 백색가전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음('15년말 기준).
  - '15년 12월 한-베 FTA 발효이후 이미 두 차례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FTA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
  - 이처럼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우리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과의 무역 및 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최근 수년간 진행된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및 수출의 증가와 품목 구성의 변화는 대규모 직접투자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
- (필요성) 우리나라 대외 경제협력에서 위상이 높아진 베트남과의 무역·투자가 실제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를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對베트남 투자가 수출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 특히 베트남에 대한 생산기지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투자지로서

베트남의 매력도를 포함해서 베트남과 연계한 가치사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RCEP을 통해 메가 FTA 공동참여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나아가 우리나라가 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어, 베트남과의 가치사슬 활용도를 더욱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삼성, LG 등 대기업 및 협력사의 對베트남 투자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어, 선순환적인 對베트남 무역, 투자 방안 모색이 필요

#### □ (목적 및 주요내용)

- 베트남과의 총량기준 무역과 투자 규모로 측정하는 양국 경제협력의 평가와 더불어, 이러한 활동이 창출하는 실제적인 가치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 한-베트남 무역, 투자 데이터 분석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가치사슬 현황을 분석
  - \* 총량기준 무역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사용하였음.
  - \* 부가가치 무역데이터는 OECD 최신 국제산업연관표(2015년 10월)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1년까지의 무역통계를 분석
  - \* 투자 데이터 및 경영성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통계 및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분석
  - \*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현황 분석은 현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나아가 베트남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구축한 가치사슬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가가치 수출과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치사슬 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요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은 상품의 기획,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무역의 방식

○ 세계화로 국가간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아웃소싱(outsourcing)’과 ‘오프쇼링(offshoring)’을 통해 생산활동을 국제적으로 재구성

-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활동의 모든 단계를 경쟁력 있는 비용과 품질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효율 극대화를 도모

- 분업화가 용이한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 등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생산공정별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

\* 예를 들어,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 4개국에 설립한 세계최대 비행기 제작 회사인 에어버스(Airbus)는 27개국 1,500개사의 참여로 비행기를 제작

○ 최종재 무역에 따른 이익보다는 생산과정을 세분화한 ‘분업 무역’에 따른 이익이 빠르게 증가

\* 볼드윈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20세기는 상품 무역(Trade in goods) 중심이었다면 21세기는 분업 무역(Trade in tasks)으로 무역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표현(Baldwin et al. 2010)

○ 이처럼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새로운 무역은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이미 세계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

\* GVC는 대부분 다국적기업에 의해 투입물과 산출물이 편성되고, 이를 계열사(42%), 제휴사(16%), 개별공급업체(42%)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거래에 의해 발생(UNCTAD, ‘13)

□ GVC 확산에 따라 무역, 투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

\* Istanbul G20 Trade Ministers Meeting: OECD-WBG inclusive global value chains report. ‘15.10.6

- (부가가치 무역 개념의 중요성) GVC 심화로 국제무역에서 중복집계 문제가 발생하여, 총량기준 무역과 부가가치기준 무역간의 차이가 점차 심화
  - 우리가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한 인풋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글로벌 생산사슬 내에 있는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 기존의 국제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 OECD, WTO, EU는 실제 각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부가한 가치를 보여주는 국제산업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본서의 분석은 OECD-WTO가 '15년 10월에 발표한 최신 부가가치무역 데이터베이스(TiVA)에 기반함.
  - 이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와 교역총액 기준 무역수지간 격차는 점차 확대
    - \* '10년의 경우 세계 총 수출량 19조 달러 중 28%인 5조 달러가 중복집계(UNCTAD '13)
    - \* 일례로 미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총무역액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의 60% 수준
  - 이는 무역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한 번만 계산되어야 하지만 중간재 수출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여러 번 계산되기 때문임.
  - 부가가치 개념 도입에 따라 무역에서 절대적인 양보다는 '추가된 가치 (added value)' 개념과 가치사슬에서 수행하는 역할(task)이 중요해짐.
  - 따라서 GVC 상에서의 무역 개념(부가가치 무역)과 통상적 무역 개념간 차이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통상정책 및 전략 수립이 필요
- GVC 참여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참여형태는 국내 기업이 수출을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후방참여와 제3국 수출에서 국내생산 중간재 투입 정도를 의미하는 전방참여로 구분(OECD Trade Policy Paper No. 159)
    - \* 우리나라의 수출이 수입 중간재를 투입한 최종재 조립 중심이라면 후방참여 정도가 높아지고,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비중이 높다면 전방참여 정도가 높아지는 것임.

- GVC를 통한 무역이 세계 무역의 80%에 달할 뿐만 아니라 참여에 따른 이익도 다대함에 따라, 효과적인 GVC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GVC는 부가가치 창출, 1인당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참여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
    - GVC 참여속도가 빠른 국가의 GDP 증가율이 평균보다 2% 포인트 가량 높음(UNCTAD, '13).
    - 한국 제조업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로 상품 복잡성 1% 증가시 기업의 생산성도 0.52% 증가
      - \* 상품복합성은 상품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성 정도를 측정(최남석, '14)
  - 특히 중소기업과 개도국은 GVC 참여를 통해 글로벌화 기회가 확대
    -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다국적시장의 공급망에 참여하여 보다 높은 시장 접근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가치사슬 참여도는 높지만 후방참여(Backward Linkage)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계성이 약함.
  - 우리나라는 OECD가 '15년 10월에 발표한 TiVA 데이터의 분석대상 57개국 중 6번째로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제3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후방참여가 전방참여(Forward Linkage)의 거의 두 배에 달함(최윤정, 2015).
    - 우리나라의 전방참여 비중(24.4%)은 일본(33.0%), 미국(28.5%)은 물론 대만(29.5%), 인도네시아(29.3%)보다도 낮아, 중간재 수출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

## 나. 가치사슬 활용에서 FTA의 중요성

- GVC로 인해 생산단계별 연계가 강조되면서 FTA의 중요성이 부각
  - 이전의 가치사슬은 개별 생산활동이 글로벌 차원으로 ‘분절화’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모든 단계가 상호 연계될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의 GVC가 강조됨 (WTO, World Trade Report 2014).
  - 이에 따라 FTA를 통해 저비용고품질 원자재, 부품소재 무역이 용이 할수록 GVC를 활용한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에 유리
    - \* OECD는 성공적인 GVC 대부분이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품 소싱으로 인해 얻는 혜택이 크다고 강조(OECD, 2015.4)
  
- 나아가 메가 FTA는 양자 FTA에 비해 GVC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강점을 지님.
  - 메가 FTA는 양자 FTA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자유롭고 넓은 시장을 제공하여 GVC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
    - \* 양자 FTA가 늘어날수록 FTA의 배타적 이익은 감소하고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거래비용은 증가

<표 1> 주요 메가 FTA: TPP와 RCEP

	참여 회원국	무역 규모 (세계 무역 비중)	경제 규모 (세계 GDP 비중)	협상 타결 및 서명
TPP	미국·일본·호주·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등 12개국 참가	27.0	37.4	-'15년 10월 타결 -'16년 2월 서명
RCEP	ASEAN 10개국, 한·중·일, 인도·호주·뉴질랜드 총 16개국 참가	30.2	30.6	-'12년 11월 협상 개시 -'16년 타결 목표

주: 세계무역비중은 2014년, 세계 GDP 비중은 2015년 기준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 메가 FTA는 경제대국을 포함한 복수국간 FTA로서, 회원국간 높은 관세 철폐 이외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성을 높힐 뿐만 아니라 특히 원산지 단일 및 누적조항 등을 통해 GVC를 촉진
- GVC와 메가 FTA는 상호보완작용을 함. 즉, 글로벌 가치사슬이 활성화될 수록 역내 통합이 가속화되며, 역내 통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사슬 구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짐(최낙균 외, '13).
- (동아시아 FTA) 동아시아는 대표적인 GVC 활용지역으로, 메가 FTA 출범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임.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분야의 부품 및 원자재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최종재의 조립공장 역할을 수행
  - 상호 교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최근 양자 및 다자 FTA를 통한 제도적 통합이 급진전되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확대
  - 후방참여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의 GVC 활용 특성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지역의 메가 FTA 관세 인하 효과는 여타 FTA보다 더욱 유리하게 작용

II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역·투자 분석

1

對베트남 무역분석

가. 총량기준 무역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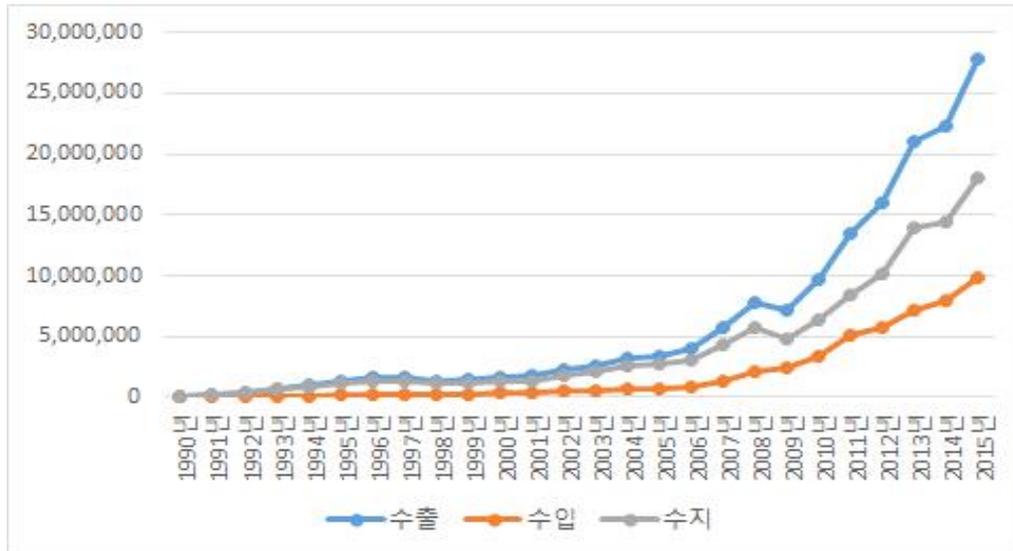
□ (무역) 베트남은 '15년 기준 한국의 3대 수출국이면서 12대 수입국에 올라 한국의 핵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277억 달러와 98억 달러로 전체 수출입의 5.3%와 2.2% 비중을 차지하여 수입대비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무역구조
- 더욱이 2003년 이후 對베트남 수출이 수입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추세를 지속
  - '15년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중에도 對베트남 수출은 24.2% 증가(수입은 22.7% 증가)
    - \* 우리나라 대세계수출('15년)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5,268억 달러를 기록. 국별로는 중국 - 5.6%, 미국 - 0.6%, 일본 - 20.5%, 싱가포르 - 36.8% 등으로 10대 수출국가 중 8개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올해 1/4분기 수출도 전년 대비 7.6%로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 베트남외 10대 수출국 중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국가는 인도(0.3%)가 유일
  -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43억 달러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221억 달러의 19.4%를 담당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교역은 전기기계장치와 기기(24.7%), 통신 및 녹음기기(17.9%) 두 개 품목이 약 42%를 차지하고, 여기에 2013년까지는 2위 수출품이었던 섬유사까지 포함하면 전기전자제품과 섬유 수출이 50.5%로 절반을 넘음.

- 한편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통신 및 녹음기기는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도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

<그림 1>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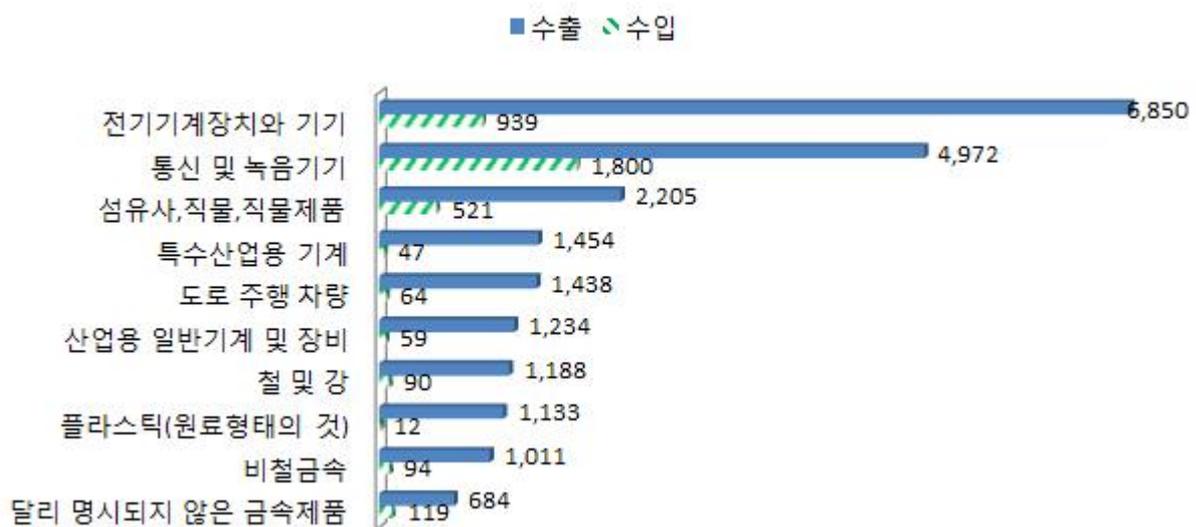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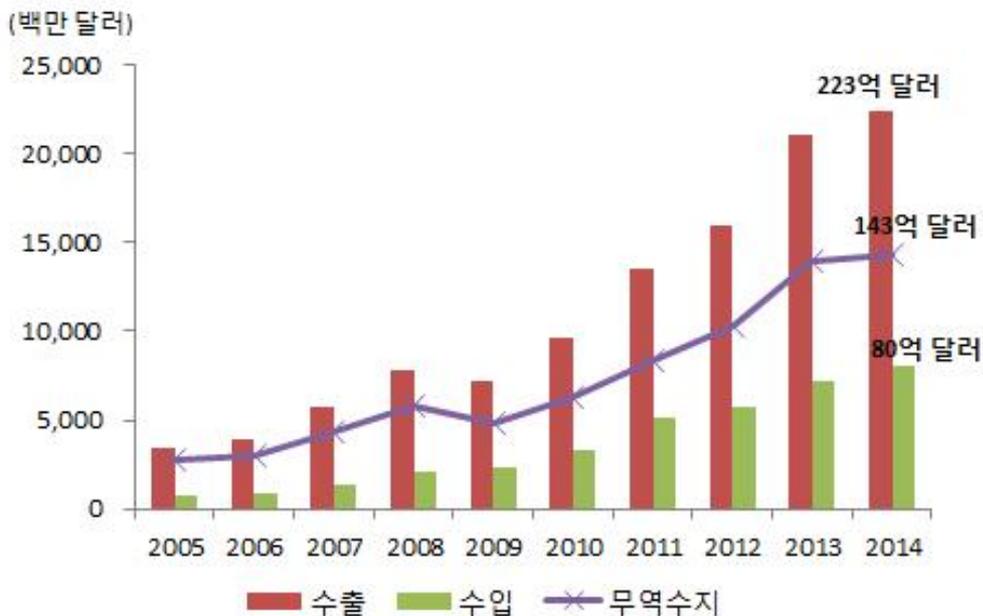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보다 구체적으로, MTI 6단위 기준으로 품목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상위 5대 품목이 모두 전기·전자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음.
  - '10년부터 1위를 지키고 있는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은 대베트남 수출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세로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음.
  - 3위 기타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수출이 '14년 백만 달러에서 '15년 10억 달러가 넘어 110,411% 증가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어,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10억 달러)
  - 한편 전통적인 1위 수출품이었던 편직물은 '09년 이후 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수출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한국의 최근 對베트남 중간재 수출 구조를 보면 중간재 수출 증가가 더욱 두드러짐.
  -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對세계 대비 對베트남 수출 증가세가 더욱 높음.

<그림 3> 한국의 對베트남 중간재 교역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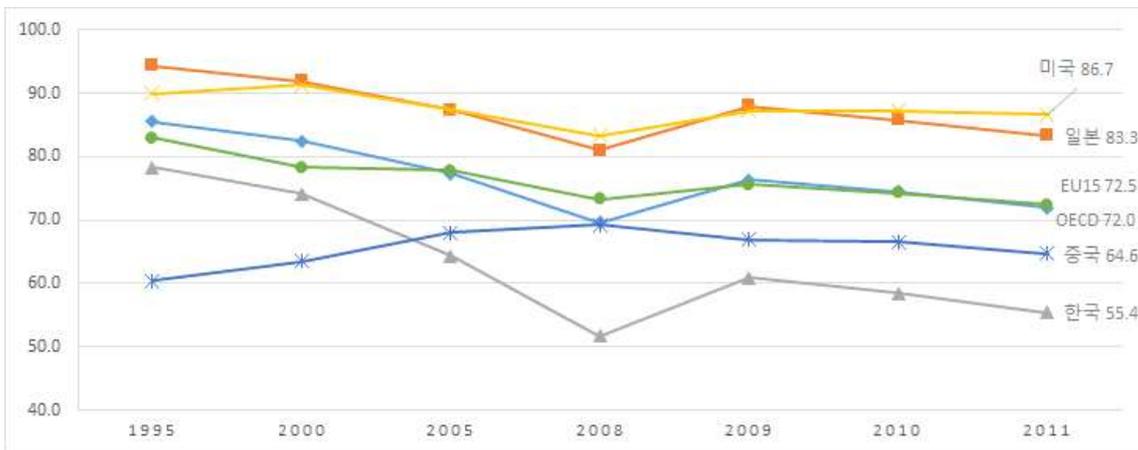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

## 나. 부가가치 기준 무역분석

□ 對베트남 수출을 통한 국내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여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중에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55.4%로, 미국 86.7%, 일본 83.3%, EU15 72.5%, 중국 64.6% 등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 추이도 감소하고 있음.

<그림 4> 주요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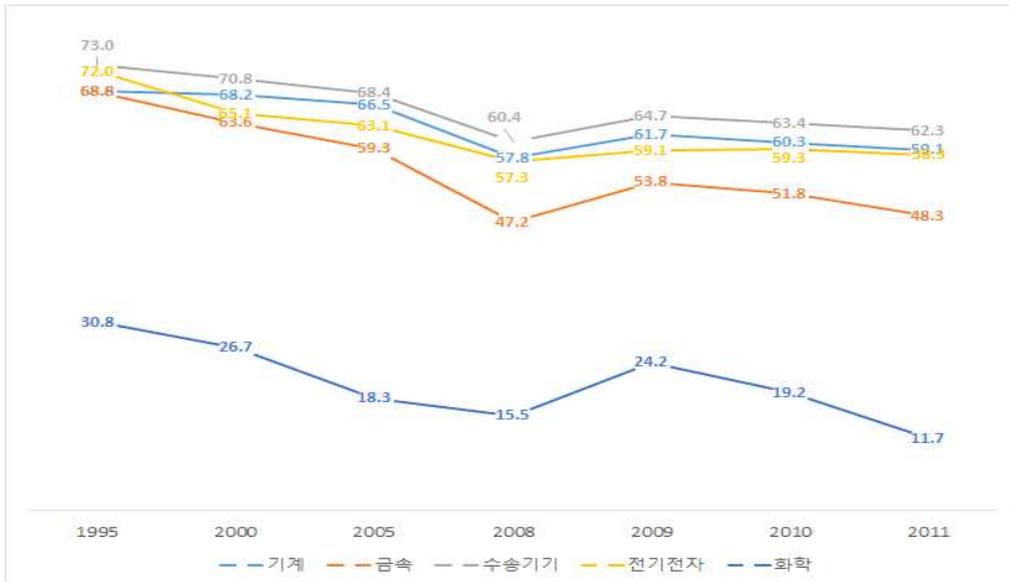
자료: OECD.stat, Trade in Value Added(TiVA), <https://stats.oecd.org>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에서 주요 산업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

-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수송기기이며, 그 다음으로 기계, 전기전자, 금속 순으로 높으며, 화학은 주요 산업 중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對베트남 수출의 주요산업별 국내부가가치 창출 비중과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 Trade in Value Added(TiVA), <https://stats.oecd.org>

- 중간재 수출의 증가와 함께 중간재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비중은 1.8%에 불과
  - 베트남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중간재의 부가가치 수출은 1.4%에 불과하고 운송기기와 기계류 중간재는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
  - 금속·금속제품과 화학·비금속 중간재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그나마 상승

<표 2> 對베트남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추이

(단위: %)

베트남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전기전자	0.16	0.21	0.22	0.34	0.51	0.84	1.43
운송기기	1.93	1.81	0.08	0.24	0.38	0.34	0.23
화학·비금속	1.06	1.26	1.48	2.17	2.06	2.12	2.04
금속·금속제품	0.96	1.21	1.98	2.96	3.16	4.63	4.52
기계류	2.60	1.56	0.66	1.03	1.02	0.92	0.79
전체	0.95	1.26	1.22	1.61	1.69	1.76	1.84

자료: 상동

-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기여도 조사를 통해서도, 베트남으로 수출한 중간재는 상당 부분이 현지 소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對베트남 중간재 수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가 2.9%로 낮아, 베트남으로 수출한 중간재는 조립·생산 과정을 거친 후 현지에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컴퓨터, 전자, 광학제품 등은 베트남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베트남에서 소비하기 보다는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
  - 한편 베트남의 총수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부가가치 비중은 36.3%('11)로, '05년 30%를 넘은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 우리나라는 2008년(41.8%) 정점 이후 잠시 위축되었다가 2011년(41.7%) 다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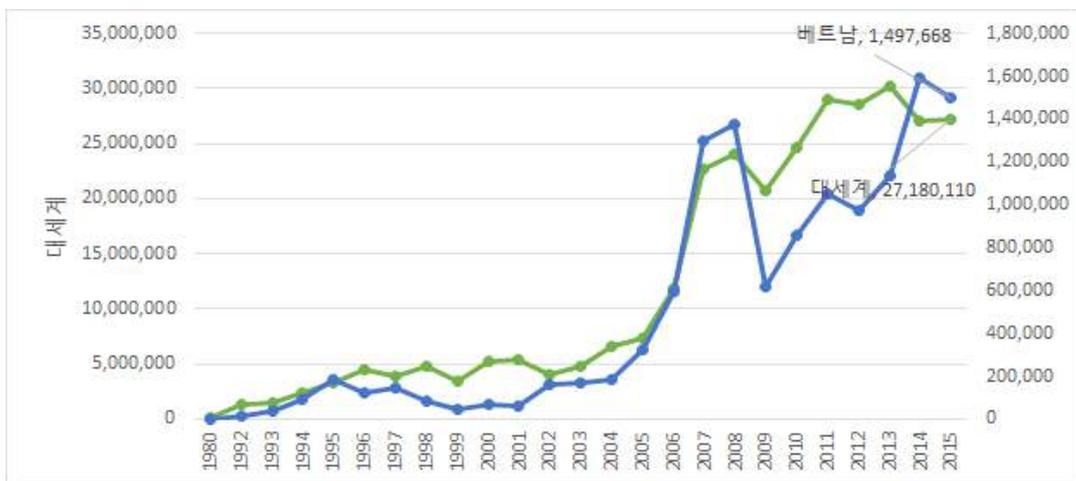
## 2 對베트남 투자분석

□ (투자) 베트남은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FDI 대상국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200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FDI)의 5.7%를 차지

<그림 6> 한국의 대세계 및 대베트남 직접투자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위축되었던 투자는 2012년부터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
- 2014년부터는 對세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여,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는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 '12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상위 5대 투자 국가에 진입, '14년말 3위(누적기준)로 부상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되어 있음.

- 對베트남 투자의 58.6%가 제조업이며, 그 다음으로 광업 1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7.4% 순으로 투자되고 있음.

<그림 7> 업종별 대베트남 FDI 현황(상위 10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및 관련 제조업이 18.0%, 의복 및 관련 제조업이 13.5% 등 전기·전자, 의류 및 섬유, 금속 제조업 5개 업종에 투자가 집중(61.4%)

<그림 8> 제조업 세부업종별 대베트남 FDI 현황(상위 10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하지만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진출기업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 미화 100만 달러 초과 투자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에서 14년 실적을 토대로 경영현황을 조사·분석 결과(수출입은행, '15)
  - 베트남 진출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2.3%와 0.6%로 매우 저조
  - 이는 전세계 우리 진출기업 평균인 3.2% 및 1.7%에 비해 0.9~1.1% 포인트 낮고, 아시아 평균인 3.4% 및 2.6%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베트남 진출기업의 매출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48.1%), 매입은 한국수입이 가장 높아(42.8%),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증가가 수출을 견인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베트남 진출기업의 매출비중은 현지(48.1%), 한국수출(35.9%), 제3국수출(16.0%)의 순이고, 매입비중은 한국수입(42.8%), 현지(34.3%), 제3국수입(22.9%)의 순임.
    - \* 우리나라 베트남 진출기업의 매출은 현지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아시아(현지 59.8%) 및 전세계(현지 66.5%) 진출기업과 유사하나, 매입은 타 지역과 달리 한국수입이 42.8%로 아시아(한국수입 33.5%), 전세계(한국수입 37.5%)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 이러한 특성은 베트남 투자가 우리 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음.
  -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을 놓고 보면, 베트남 투자수익률(투자수익/투자잔액)은 3.8로, 전세계전체 평균 9.0, 아시아 평균 16.8 및 아세안 평균 8.5에 훨씬 미달
  - 한편 베트남의 수출유발효과는 80.7%, 수입유발효과는 91.9%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마이너스(-11.2%)를 기록함에 따라, 투자를 할수록 베트남 생산 제품을 수입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아시아 무역수지 개선효과 17.1% 및 아세안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37.2%에 비해 현저히 낮고, 對세계전체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무려 73.3%로 높는데 비하면 초라한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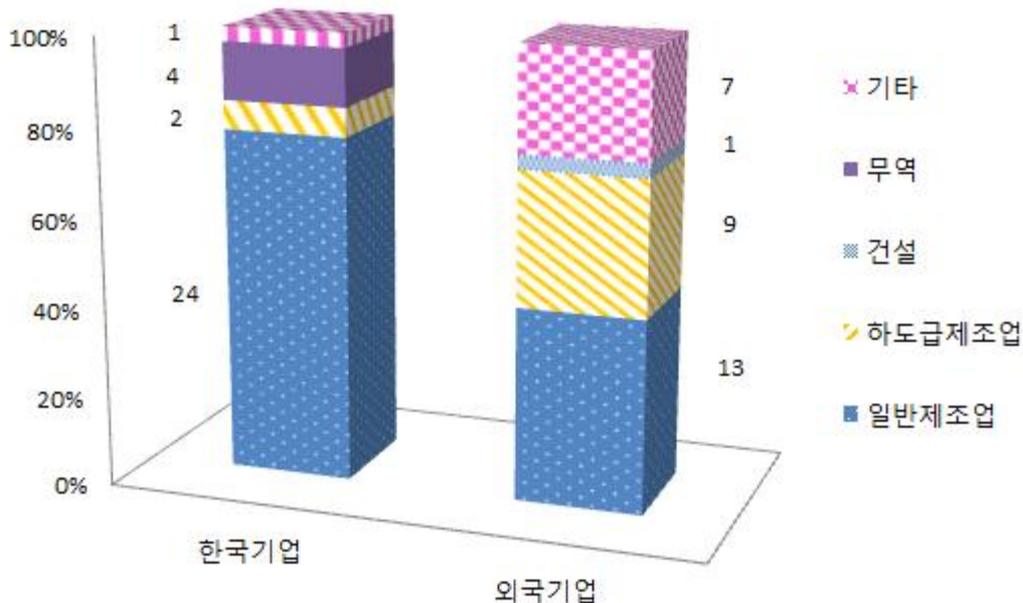
### Ⅲ

## 베트남 진출기업 설문 분석

- 본 절에서는 베트남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실례를 비교·분석
  -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의 업종 형태 및 GVC내에서 분업화 현황을 파악하여 베트남 투자가 우리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미약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
- 설문조사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진출 기업 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국기업 43개사 및 외국기업 24개사)
  - 설문에 응한 베트남 진출기업(이하 진출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일반제조업과 하도급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설문대상 기업의 업종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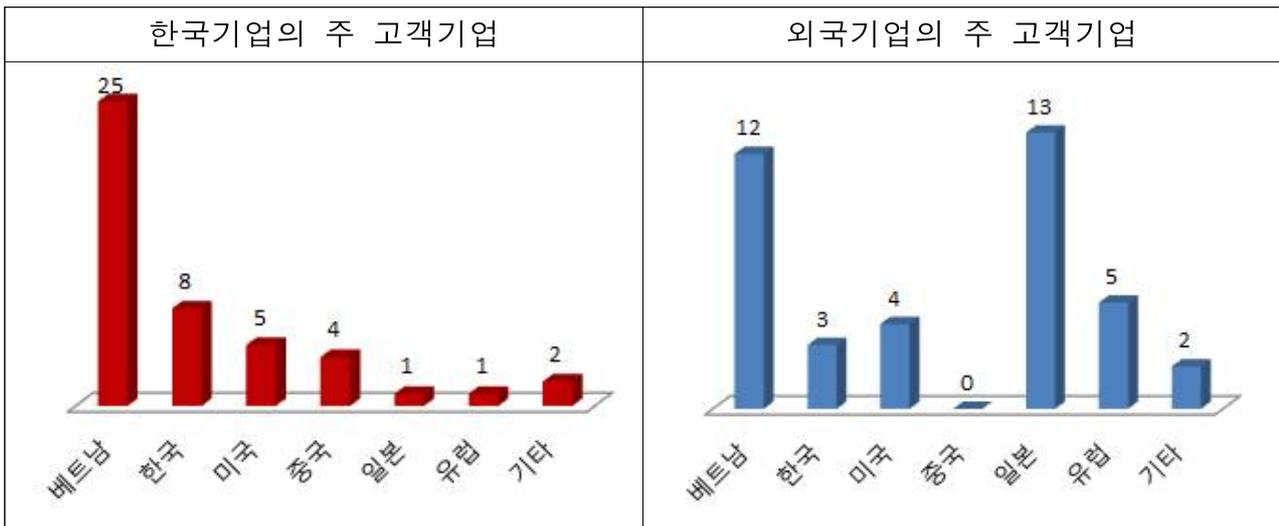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반면 외국기업은 산업단지 및 상업단지 개발 등 진출 업종이 다양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9.6%인 반면, 외국기업은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분야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출 비중이 우리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매출액 상위 기업일수록 주요 고객기업이 베트남인 경우가 많았음.
- (고객기업 위치) 한국기업은 생산 후 현지(베트남) 판매 비중이 높은 반면, 외국기업은 생산 후 제3국 판매, 즉 수출의 비중이 높음.
  - \* 한국기업의 생산 후 판매시장은 베트남 25개사, 한국 8개사, 미국 5개사, 중국 4개사 등
  - \* 외국기업의 생산 후 판매시장은 베트남 12개사, 한국 3개사, 미국 4개사, 일본 13개사, 유럽 5개사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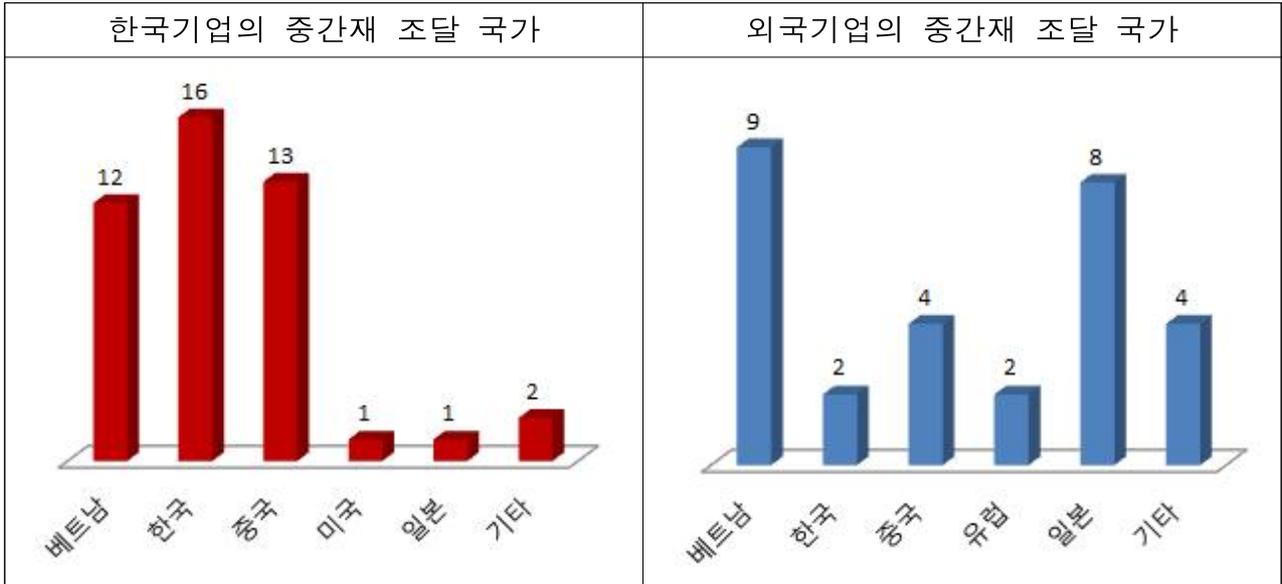
<그림 10> 베트남 조사기업의 주요 고객기업 위치 분포



- (중간재 조달) 한국 및 외국기업 모두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은 대부분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남.
-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역내 인접한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생산 및 조립 후 유럽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GVC내의 전형적인 분업 형태를 보임.

\* 이 중 베트남과 함께 TPP에 참여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여, TPP 발효를 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림 11> 베트남 조사기업의 주요 중간재 제공기업 위치 분포



- 우리 기업의 경우 현지보다는 한국, 중국에서 중간재 조달을 하는 반면, 외국기업은 현지 조달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조달
- (인력 채용)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베트남에서 고용한 정규직 중에서 현지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90.5%로, 외국기업의 94.5%보다 낮음.
-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 채용 규모가 작은 무역 종사 기업의 현지 채용 비율이 낮기 때문이며, 기타 제조업은 외국기업과 비슷한 수준
- 또한 현지 채용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기업이 9개에 달하는 등 외국기업보다 현지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높은 편임.
- (아웃소싱) 우리기업의 아웃소싱은 물류·유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외국기업은 물류·유통 뿐만 아니라 ICT서비스, R&D·디자인·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에 걸쳐 아웃소싱을 활용

- 우리기업은 본사의 지원 및 관리로 아웃소싱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1/3에 달했음. 이는 우리기업이 현지 기업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역량을 키우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그림 12> 베트남 조사기업의 아웃소싱 활용 분야(복수 응답)



- 또한 앞에서 지적한 분업과 집중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의 경우 주로 물류 및 유통에 아웃소싱을 한다고 응답
  - 이는 판매의 핵심 활동에서 베트남 현지와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GVC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 즉, 판매는 현지 소싱하지만 나머지는 자체 해결(특히 생산)
- 우리기업의 경우 공급받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웃소싱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됨
  - 반면 외국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관세·무역장벽에서 우리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ASEAN FTA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우리기업의 경우 법·행정적 어려움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아웃소싱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3> 베트남 조사기업의 아웃소싱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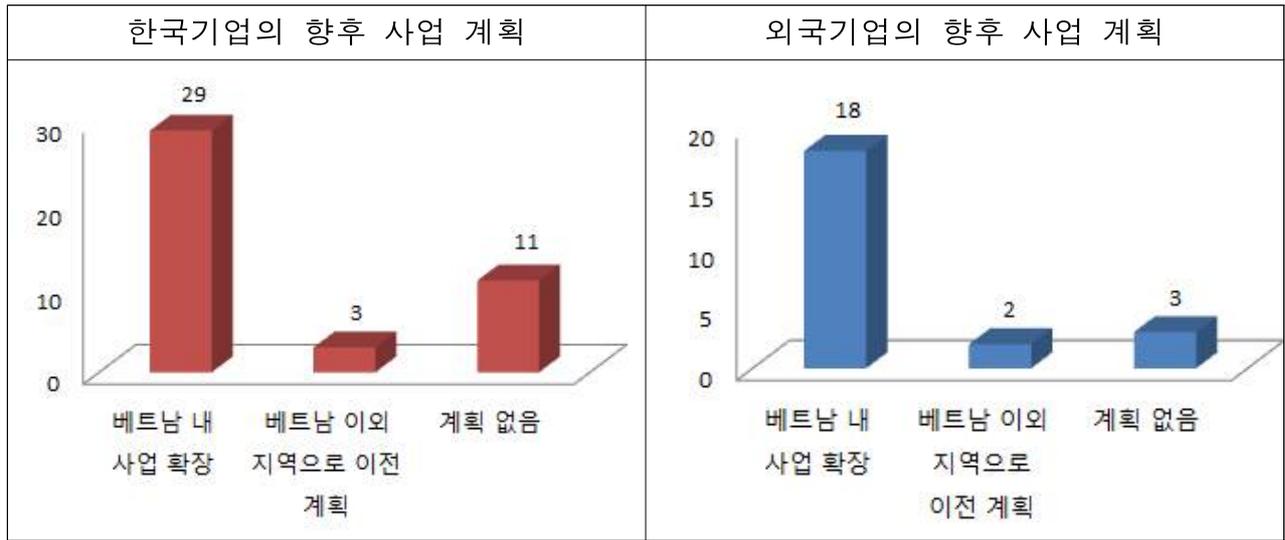
- 경영상의 애로사항은 아웃소싱의 어려움과 유사하게 나타남.
- 우리기업의 경우 행정 및 절차상의 복잡함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68.4%로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외국기업은 통관상의 문제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행정 및 절차상의 복잡함과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음.

<그림 14> 베트남 조사기업의 경영상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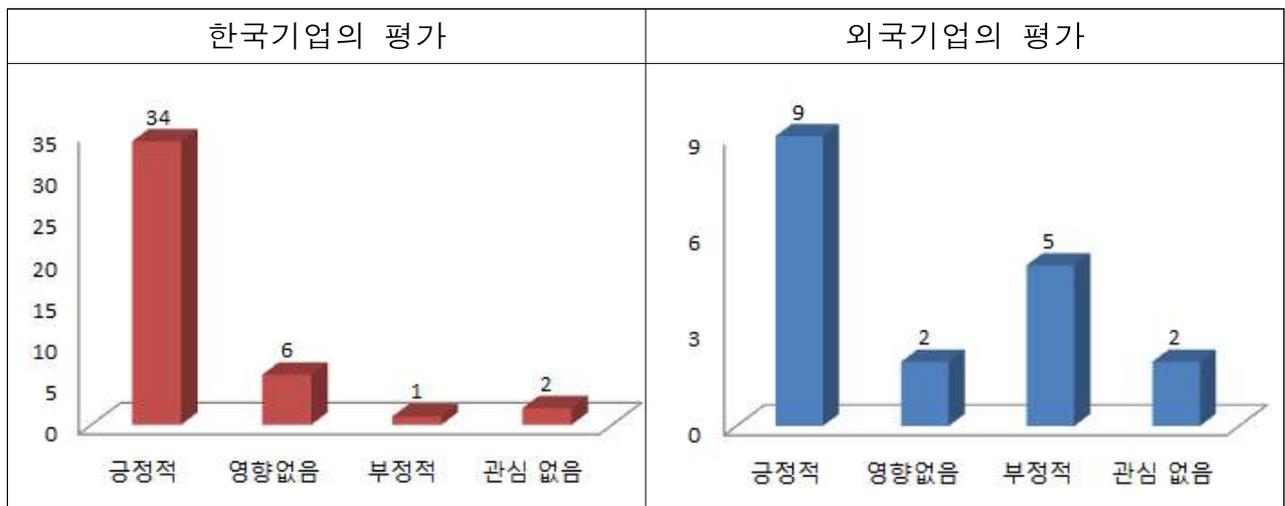
- 국적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향후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베트남 이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은 거의 없음.

<그림 15> 베트남 조사기업의 향후 사업 확장/이전 계획



- 베트남의 TPP 가입에 따른 현지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기업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음.
- 베트남이 TPP에 가입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기업은 베트남 현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9.1%에 달하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기업은 1개에 그쳤음.
- 외국기업의 경우 TPP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과 거의 같았음.

<그림 16> 베트남의 TPP 가입이 현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IV

## 시사점 및 제안

### 1

### 對베트남 무역·투자의 문제점

- 對베트남 무역과 투자는 총량기준으로는 규모가 크지만 부가가치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낮은 부가가치 수출) 우리나라 수출의 5.3%를 차지하는 對베트남 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55.4%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평균 부가가치 수출 비중(58.8%)에도 미치지 못함.
  - 베트남 수출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입 중간재 활용 비중이 높아 후방 참여는 활발하나, 베트남에서 조립 생산한 제품을 주로 현지시장에 판매함에 따라 전방참여도가 낮은 문제를 나타냄.
  - 특히 최근 對베트남 수출을 견인하는 중간재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매우 낮아, 향후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낮은 투자 수익성)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5.7%를 차지하는 3위 투자 대상국인 베트남 진출 기업의 경영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투자수익률 등 주요 경영성과에서 모두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로 베트남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현지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취약한 형태를 보였음.
  - 달리 말하면, 한국은 현지진출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보다는 현지시장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제한적인 수준이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갖고 있음.

- 이는 베트남 현지에서 비용경쟁력을 높여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일본 등 여타 국가들의 가치사슬 연결망과는 매우 다른 모습임.
- 또한 우리기업의 현지화 수준이 낮은 점은 양면적 의미를 지니지만, 점차 현지화가 가속화되면 투자가 수출을 유발하는 선순환 효과는 현저히 줄어들 전망임.
  -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현지화 수준은 진출기업의 투자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인력 채용 비중은 여타 외국기업보다 낮고, 투입 중간재의 주요 조달처가 한국이었으며, 아웃소싱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전반적인 현지화 수준이 낮았음.
  - 하지만 한국 본사로부터의 조달 등 여러 형태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을 견인하는 양면적 의미를 지님.
    -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간 거래가 많은 등 현지화 수준이 높지 않아서 수출유발효과가 높은 편임. 하지만 향후 현지화가 심화되면 수출유발 효과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해외수요로 창출된 국내부가가치를 견인해온 전기전자(71.2%), 운송기기(68.0%)는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투자 증가를 통해 수출이 동반 성장해온 품목인데, 이들 품목의 현지화와 생산기지 이전이 증가하면 국내부가가치 성장동력이 점차 쇠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무역, 투자 전반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활발하나, 경제성장으로의 연결고리가 취약

- 우리나라 부가가치 수출 비중(VAX)은 58%로 일본(85%) 뿐만 아니라 베트남(68%)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최윤정. 2015. p. 13).
- 소재·부품 중 핵심분야의 해외수입 총당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초 금속, 화학, 전기전자의 경우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산업 평균에 미달
- \*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기초금속 46.4% 화학 46.9%, 전기전자 58.2%

## 2 향후 과제 및 제언

### 가. 부가가치 향상

- 총량기준 접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서 해외에서 조달한 소재·부품 활용도를 의미하는 후방참여도가 특히 높음에 따라,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비중이 낮은 점은 향후 개선과제임.
  - (후방참여 개선) 수익성 향상을 위해 비핵심 기능 및 제품의 해외조달은 확대하되,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내생산 확대와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투입하여 수출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일례로, 전기·전자제품의 베트남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비중은 58%에 불과하여 핵심 소재부품의 국내 조달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수출의 혜택이 해외조달국가로 이전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현지투자는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모델 재정비가 필요
  - 베트남 진출기업의 성장세 및 수익성이 둔화되는 양상은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임.

- 외형적인 성장 위주 전략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현지의 값싼 원료, 저렴한 노동력 등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비핵심 기능 및 사업의 정리,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현지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보다 매진
- (전방참여 개선) 전방참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판매처를 저가 중심의 베트남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선진국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은 판매가 용이한 현지시장 판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제3국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 형성이 요구됨.
- 베트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기업들의 부진한 현지화는 향후 도전 과제가 될 것임.
  - 진출국가내 원자재 공급처와의 거래규모 확대, 원재료의 적기 조달 과 물류비 절감 등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현지법인의 영업 및 경영방식이 갈수록 현지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나. FTA 활용 극대화

### □ 한-베 FTA의 이점을 최대화한 베트남시장 선점전략이 필요

-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FTA는 수출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투자진출의 현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의 역할도 병행
  - \* 이미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매출 비중은 전년대비 3.6%p 증가한 66.5%를 기록하였으며, 현지매입 비중은 전년대비 3.4%p 증가한 44.1%를 기록('14년 기준)
  - \* 특히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의 매입의 경우 '10년부터 현지매입 비중이 한국수입 비중을 앞지르는 등 매입에 있어서는 현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남.
- TPP나 RCEP 같은 메가 FTA체결 시 기존의 일본, 중국 등 기존 경쟁 국가에 더하여 미국 까지 가세하여 경쟁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 높음.
- 단순하게 베트남을 저비용 생산거점으로 이용하는 데서 벗어나 현지 판매에 있어서도 현지화 및 차별화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메가 FTA를 이용한 공격적인 글로벌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 베트남을 TPP, RCEP 등 메가 FTA 참여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

- TPP 발표 혜택 최고 수혜국가(베트남 등) 중심 진출 전략 수립
  - TPP 발효 시 2030년까지 베트남은 경제성장률이 10%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 이는 의류산업 등에서 미국 등 주요 참여국 시장 접근성이 향상된데 따른 것임.
    - \* 말레이시아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8%, 일본은 2.7% 등으로 전망. 한편 미국과의 FTA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누리던 이점을 잃을 가능성으로 약간의 타격이 예상 ('16.1.6 세계은행 TPP 협정문 세부문항 분석 결과)
- 메가 FTA는 특히 GVC 업그레이드에 유용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무

역과 투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FTA 전략이 필요

- RCEP이나 TPP 모두 GVC 분석을 통한 FTA 협상 진행이 필요
  - \* 역내 생산공급사슬이 발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메가 FTA가 생산활동 효율성 향상에 특히 중요
- 기업차원에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개선하거나 장벽을 낮추기 어려운 부분을 다자국 정부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음.
  - \* TPP의 경우 전통적인 FTA 항목인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경쟁 및 비즈니스 촉진정책,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개발, 노동, 환경,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차세대 이슈도 포함.

□ 기존에 구축한 가치사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TPP뿐만 아니라 RCEP 활용방안 강구가 중요한 과제

- 한, 중, 일 및 동남아 국가들간 구축한 가치사슬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TPP도 중요하지만 RCEP의 중요성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
-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구축한 GVC에서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중간재 수입과 최종재 생산을 대부분 담당하는 중국과 일본이 RCEP에 포함
- RCEP은 참여국간 발전 수준 격차가 크고 사안별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협상 진전이 더디고 타결시에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나, 역내 GVC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상 참여가 필요
  - \* 우리나라는 2016년내 타결을 목표로 RCEP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한중일 FTA 협상도 진행 중임.
- 또한 TPP는 GDP 비중 총합의 85% 이상인 6개국 이상 비준시 서명일(2016.2.4.)로부터 2년 후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2018.4월 이후 발효 가능(발효를 위해서는 미국 및 일본의 비준이 필수적)

## 참고자료

- Baldwin, Richard, Frederic Robert-Nicoud. 2010. “Trade-in-goods and trade-in-tasks: An Integrating Framework.” *NBER Working Paper* No. 15882. April 2010
- OECD. 2013. “Mapping Global Value Chains.” *Trade Policy Paper* No. 159.
- OECD. 2015. *Istanbul G20 Trade Ministers Meeting: OECD-WBG inclusive global value chains report(2015.10.6)*.
- OECD. 2015.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Global Value Chains : Implications for Trade and Trade-Related Policies*.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Global Value Chains :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2015. 진출기업 설문조사
- 오유진. 2015. 「한-베트남 FTA 영향과 우리기업 진출방안」. Global Market Report 15-0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최낙균·김영귀. 2013.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1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남석. 2014. 「10대 주요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 경제적 복합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 최윤정. 2015.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인도 제조업 진출전략」. Global Strategy Report 15-0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데이터베이스

OECD TiVA Database (OECD.stat, Trade in Value Added(TiVA),  
<https://stats.oecd.org>)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COMTRAD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http://comtrade.un.org>

산업자원부 소재부품종합정보망 (<http://www.mctnet.org>)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4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  
수출입은행.

## 참고 한국의 중간재 교역

- 한국의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점차 증대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전체 무역비중의 53%를 상회

<표 1> 한국의 최근 수출 구조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기타
2007	25.4%	48.4%	4.4%	21.8%
2008	26.5%	45.9%	3.9%	23.7%
2009	28.9%	45.1%	4.2%	21.7%
2010	26.5%	48.4%	4.0%	21.1%
2011	24.9%	48.2%	3.7%	23.2%
2012	22.7%	49.9%	3.8%	23.6%
2013	22.0%	52.0%	3.9%	22.0%
2014	22.0%	53.1%	4.0%	20.8%

자료: UN Comtrade

<표 2> 한국의 대세계 부품·소재산업 교역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 1~2016. 3누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변동액)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변동액)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변동액)
전산업	572,665	525,515	47,150	526,757	436,499	90,258	115,615	93,558	22,057
	-2.3	-1.9	-3,103	(-8.0)	(-16.9)	-43,107	(-13.3)	(-16.3)	-424
부품·소재 산업*	275,935	168,160	107,775	264,601	159,642	104,959	59,328	36,298	23,030
	-4.9	-1.6	-10,270	(-4.1)	(-5.1)	(-2,816)	(-10.9)	(-10.7)	(-2,910)

자료: 산업자원부 소재부품종합정보망

<표 3> 주요국별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매출입 비중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전체	66.5	15.8	17.7	44.1	37.5	18.4
개도국	63.1	22.6	14.3	49.8	32.9	17.4
선진국	73.0	3.0	24.0	33.8	45.9	20.4
아시아	59.8	25.2	15.0	51.5	33.5	15.0
중국	65.6	28.6	5.8	63.9	26.1	10.0
ASEAN	51.6	26.1	22.3	37.7	38.9	23.4
<b>베트남</b>	<b>48.1</b>	<b>35.9</b>	<b>16.0</b>	<b>34.3</b>	<b>42.8</b>	<b>22.9</b>
인도네시아	61.5	15.9	22.6	58.6	8.7	32.7
일본	51.7	10.9	37.4	19.8	65.9	14.3
미국	83.6	2.3	14.1	42.6	50.0	7.4
EU	59.0	2.8	38.2	26.1	34.3	39.6
독일	42.3	2.2	55.5	3.2	50.7	46.0
중남미	90.2	1.7	8.2	27.5	50.6	21.9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4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표 4> 주요국별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전체	150,550,905	224,071,258	113,710,700	148.8	75.5	73.3
개도국	88,283,500	126,834,784	106,080,230	143.7	120.2	23.5
선진국	62,267,405	97,236,474	7,630,470	156.2	12.3	143.9
아시아	68,687,977	116,985,020	105,257,425	170.3	153.2	17.1
중국	34,565,110	53,181,683	68,846,293	153.9	199.2	-45.3
ASEAN	21,153,317	36,926,077	29,067,022	174.6	137.4	37.2
<b>베트남</b>	<b>6,352,206</b>	<b>5,126,380</b>	<b>5,838,133</b>	<b>80.7</b>	<b>91.9</b>	<b>-11.2</b>
인도네시아	5,801,634	1,199,896	2,983,327	20.7	51.4	-30.7
일본	2,738,268	7,964,489	1,727,282	290.9	63.1	227.8
미국	28,502,333	54,473,448	2,942,194	191.1	10.3	180.8
EU	15,966,598	27,372,257	2,628,687	171.4	16.5	155.0
독일	2,652,190	13,661,595	655,601	515.1	24.7	490.4
중남미	10,230,308	9,213,524	430,976	90.1	4.2	85.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4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작성자

- ◆ 글로벌전략지원단 최윤정 연구위원
- ◆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 Global Market Report 15-064

##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과 과제: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6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6926-80-2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Global Market Report

---

#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과 과제: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